

##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 고찰 -알렉산드리아 성경 중심으로-

우상혁\*

### 1. 시작하는 말

주전 3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기 시작한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지만 칠십인역 역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고대 이후로 지금까지 칠십인역의 번역이 부흥하였던 시대는 두 번 있었다. 1차 부흥은 주후 2세기에 시작하여 7세기 사이에 지중해 연안과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후 불가타가 지배하였던 중세 시대에는 칠십인역은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 내에서 칠십인역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1)</sup> 그러다 20세기 말에 칠십인역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칠십인역 번역의 르네상스 시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지금은 2차 부흥이 시작되었다.<sup>2)</sup> 서구에서 일어난 칠십인역 번역 붐은 영어(New English

---

\* 안양대학교 외래강사, 구약학.

- 1) 벨트리(G. Veltri)는 초대 기독교에서 베리타스 그레이카(Veritas Graeca)가 대세였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Vulgata) 성경을 계기로 비록 간접적이지만 베리타스 헤브라이카(Veritas Hebraica) 시대로 넘어갔다고 한다. G. Veltri, *Libraries, Translations, and 'Canonic' Tests: The Septuagint, Aquila and Ben Sira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6), 42-77. 종교개혁 당시 칠십인역이 완전히 외면을 당한 것은 아니었다. 인쇄술의 발달과 고전으로 돌아가려는 르네상스 여파 속에서 이탈리아 북부와 스페인에서 세 종류의 칠십인역 인쇄본이 나왔다.
- 2) 칠십인역 번역의 1차 부흥은 기독교의 확장과 더불어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역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교회의 요구와 신앙적 필요에 따른 결과이다. 1차 부흥 시대에 만들어진 번역은 구라틴어 역본(Vetus Latina)과 콥트어, 아르메니아어, 에티오피아어, 시리아어, 아랍어, 고대 슬라브어 등이 있다. S. Jellicoe,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246-268; M. Harl, G. Dorival et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Paris: Cerf, 1988), 136-140; J. M. Dines, *The Septuagint* (London: T & T Clark, 2004), 9-11. 칠십인역 번역의 2차 부흥은 교회의 요구나 신앙적 필요보다는 성경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요구와 학문 연구 목적에 있다. W. Kraus, "Septuaginta Deutsch (LXX.D): The Value of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Robert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46-247.

Translation Septuagint[새 칠십인역 영어 번역], 이하 NETS)<sup>3)</sup>와 독일어 (Septuaginta Deutsch[칠십인역 독일어역], 이하 LXX.D)<sup>4)</sup>, 불어(*La Bible d'Alexandrie*[알렉산드리아 성경])<sup>5)</sup>의 경우에 번역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sup>6)</sup>, 일본어는 번역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그리스어와 현대 히브리어, 러시아어는 번역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에 관한 건설적 쟁론이 있었다. 본 글에서는 2차 부흥의 불씨가 되었던 칠십인역 불어 번역 중심으로 핵심 쟁점 사항을 살피고자 한다. 번역 정책과 관련된 이 논쟁은 주로 *La Bible d'Alexandrie*와 NETS, LXX.D 번역 과정 전후에 진지하게 논의되었다.<sup>7)</sup> 그 논의는 ‘상류’와 ‘하류’ 논쟁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La Bible d'Alexandrie*이 취한 하류 관점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를 먼저 소개한 후에 하류 관점에 따른 번역이 무엇인지 구체적 예를 통하여 살피면서 이런 논의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겠다.

## 2. 상류 대 하류 논쟁

3) Albert Pietersma and Benjamin G. Wright, 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9세기에 칠십인역은 영어로 번역된 적이 두 번 있다. C. Thompson,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from the Greek* (Philadelphia: Jane Aitken, 1808); Lancelot Charles Lee Brenton,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Vatican Text,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rincipal Various Readings of the Alexandrine Copy, and A Table of Comparative Chronology*, 2 vols. (London: S. Bagster and Sons, 1844).

4) M. Karrer und W. Kraus, Hrsg., *Septuaginta Deutsch* (Stuttgart: Bibelgesellschaft, 2009).

5) 칠십인역의 불어 번역은 *La Bible d'Alexandrie*(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이 이름은 예루살렘 성서 학교(Ecole biblique de Jérusalem)에서 히브리어 구약과 헬라어 신약을 불어로 번역한 ‘예루살렘 성경(*La Bible de Jérusalem*)’과 대조,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졌다. G.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66.

6) 스페인어 칠십인역 번역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N. F. Marcos, “A New Span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283-291.

7) *La Bible d'Alexandrie*의 전체적 특징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이상혁(가나다 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60-61.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된 칠십인역을 번역하는 일은 여타 고전을 번역하는 것보다 복잡한 점이 있다. 칠십인역 자체가 번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칠십인역 번역은 이중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 종교 경전<sup>8)</sup>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다. 칠십인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상류 대 하류 논쟁을 낳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칠십인역의 불어 창세기 번역을 책임지었던 아를(M. Harl)은 1984년에 발표한 ‘칠십인역을 불어로 번역하는 이유와 방법’<sup>9)</sup>에서 칠십인역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방법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두 가지 관점을 거론한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원문에 무게 중심을 두는 관점이다. 이 입장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위하여 칠십인역을 적극 활용한다. 가령, 히브리어 사본이 훼손되었거나 히브리어 의미가 애매할 때 칠십인역에 도움을 청한다. 즉, 이 입장에서는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 현대어 번역 정책과 관련하여 이 관점이 취하는 태도는 칠십인역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바에 비중을 두어 번역한다. 아를은 이러한 태도를 상류(amont) 관점이라고 한다.<sup>10)</sup> 두 번째는 히브리어 원문이 아니라 번역된 칠십인역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다. 이 입장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의 번역이지만 칠십인역을 원문으로부터 독립된 ‘자립형 작품’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접근은 칠십인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해석되었는가에 관심이 많다. 이 관점에 따르면 칠십인역에 나타난 헤브라이즘도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고려하지 않고 칠십인역 독자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번역한다. 아를은 이러한 방법을 하류(aval) 관점이라고 한다.<sup>11)</sup> 아를은 칠십인역이 기독교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실제 종교 경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하류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칠십인역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배웠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칠십인역에 의존하여 논증하였고, 교회 예전에서 칠십인역이 사용되었으며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이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칠십인역을 인용하였으

8) 칠십인역은 한때 경전으로 수용되고 읽혀졌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일어난 칠십인역의 정경화 작업과 탈정경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G. Veltri, *Libraries, Translations, and ‘Canonic’ Tests: The Septuagint, Aquila and Ben Sira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26-146.

9)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M. Harl éd., *La langue de Japhet: quinze études sur la Septante et le grec des chrétiens* (Paris: Cerf, 1992; Presses de l’Ecole Normale Supérieure, 1984, 83-93), 32-41.

10)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2-33.

11) Ibid.

며, 교리와 교회의 기도 형식이 칠십인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교리가 칠십인역을 근거로 형성되고 변증된 사실을 아를은 강조한다.<sup>12)</sup> 상류 관점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하류 관점은 칠십인역이 번역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텍스트’라는 데 의미를 둔다.<sup>13)</sup>

아를이 상류와 하류 관점을 제시하였던 1984년만 하더라도 아직 번역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은 없었다. 이후 상류와 하류 관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불어, 영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였으며,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 가운데 *La Bible d’Alexandrie*는 하류 관점, NETS는 상류 관점,<sup>14)</sup> LXX.D는 상류를 무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류 지향 번역을 한다.<sup>15)</sup> NETS의 편집자이며 칠십인역 시편을 번역한 피터스마(A. Pietersma)는 NETS가 상류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상류와 하류 관점은 잘못된 설명이며, 상류도 하류도 없고 오직 위에서 아래로의 ‘흐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더 나아가 피터스마는 칠십인역이 번역된 후 독립적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칠십인역의 언어는 히브리어 원문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up>17)</sup> 피터스마는 칠십인역이 전하는 내용은 오직

12)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3. 칠십인역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력과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다음 글을 참조하라. M. Harl, G. Dorival et O. Munnich,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269-320.

13)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2.

14) LXX.D 미가서를 번역한 우츠슈나이드는 *La Bible d’Alexandrie*은 하류로서 공식적, NETS는 상류로 통시적이라고 한다. H. Utzschneider, “Auf Augenhöhe mit dem Text: Überlegungen zum wissenschaftlichen Standort einer Übersetzung der Septuaginta ins Deutsche”, H.-F. Fabry und U. Offerhaus, Hrsg.,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Studien zur Entstehung und Bedeutung der Griechischen Bibel (Band 1)* (Stuttgart: Kolhammer, 2001), 11-50.

15) 아래 글에서 NETS와 *La Bible d’Alexandrie*, LXX.D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이상혁,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 1:1-2:3의 예로”, 59-62. 칠십인역 독일어 번역에 대한 소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S. Kreuzer, “칠십인역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 김정훈 역 「성서마당」 59 (2003), 18-22;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IOSCS* 34 (2001), 40-45.

16) A. Pietersma, “NETS and ‘Upstream-Downstream’ Metaphor”, Robert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33-234.

17) A. Pietersma,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219. 쿡은 NETS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La Bible d’Alexandrie*가 칠십인역의 수용사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취한다. J. Cook, “Translating the Septuagint: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26-28.

히브리어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이해될 수 있으며,<sup>18)</sup> 히브리어 성경이 칠십인역을 해석하는 ‘의미의 심판자’라고까지 한다.<sup>19)</sup> 피터스마는 ‘생산’과 ‘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sup>20)</sup> 하지만 생산과 수용은 상류와 하류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며, 히브리어 성경을 칠십인역 해석과 번역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피터스마가 상류 관점을 취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sup>21)</sup> 칠십인역의 스페인어 번역을 주도하는 마르코스(N. F. Marcos)는 칠십인역이 예배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대신하여 사용되었기에 히브리어 성경은 칠십인역의 의미를 판단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설령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어에 의존하지 말고 칠십인역의 헬라어 의미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LXX.D 번역 사업에 깊이 관여한 크라우스(W. Kraus)는 칠십인역을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하면서도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며, 위 두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한다.<sup>23)</sup> 아들의 두 관점 설명은 차후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자들 사이에 적극 논의되어 ‘상류 대 하류’ 논쟁으로 발전하였고,<sup>24)</sup> 무엇보다 이 두 관점은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 정책과 관련된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25)</sup>

18) A. Pietersma,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220.

19) Ibid., 224.

20) A. Pietersma and B. G. Wright III, ed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xv.

21) 피터스마의 상류 지향은 주로 칠십인역 시편 연구에 따른 자신의 ‘행간번역’ 이론에서 시작한다.

22) F. N. Marcos, “Reactions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235-236.

23) W. Kraus, “Septuaginta Deutsch (LXX.D)”, 247.

24) 아래 글에서 상류와 하류에 관한 간단한 언급을 하였다.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이상혁(가나다 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각주 20.

25) 상류와 하류 관점은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뿐만 아니라 칠십인역 사전 편찬에도 적용된다. 무라오카는 호세아 13:8 ‘ἄρκος ἀπορομένη’의 예를 들어 아들이 취한 입장에 동의하면서, 히브리어 성경과의 관련성 안에서 칠십인역을 이해하려는 러스트-에니켈-하우스피의 사전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과 자신이 만든 사전을 구별한다. T. Muraoka,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VIII-IX. 무라오카 사전은 하류, 러스트-에니켈-하우스피 사전은 상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러스트는 그의 사전 서문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칠십인역이 번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J. Lust, E. Eynikel and K. Hauspie,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VIII-XIII. 하지만 러스트가 칠십인역 단어의 히브리어 관련성을 항상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에 그가 취한 정책과 구체적 실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다.

### 3. *La Bible d'Alexandrie*의 번역 정책

하류 관점에 근거한 *La Bible d'Alexandrie*의 기본적 번역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칠십인역은 문예성을 가진 자립형 책이기에 히브리어에 의존한 번역을 하지 않는다. 칠십인역은 번역서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부터 독립된 책이라는 것이다.<sup>26)</sup> 둘째, 헬라어가 통용되었던 지역에서 그리고 칠십인역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던 상황에서 칠십인역 헬라어의 의미를 찾는다. 칠십인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의 어휘나 구문은 칠십인역 그 자체에 의해서 명확해지며 헬라어적이지 않은 표현조차도 찾은 사용과 문맥의 도움으로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sup>27)</sup> 만약, 칠십인역에 난해 구절이 있더라도 굳이 히브리어의 의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며 히브리어 성경은 칠십인역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 참고가 될 뿐이며,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헬라어 언어 체계 틀과 유대-헬라적 배경 안에서 헬라어 성경이 당시 독자에게 전하였던 의미이다. 셋째, *La Bible d'Alexandrie*는 불어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칠십인역의 언어적 특징을 살리고<sup>28)</sup> 가능한 문자적 번역을 시도한다.<sup>29)</sup> 이러한 번역 정책이 *La Bible d'Alexandrie*의 모든 책에 철저하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La Bible d'Alexandrie*의 기본적 정책 방향은 위와 같다.<sup>30)</sup> 비록 제한적이지만 아래 예들을 통하여 하류 관점이 현대어 번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보겠다.

26)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2-33.

27) M. Harl, “La Bible d’Alexandrie I. The Translation Principles”,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186.

28) M. Harl, “La Bible d’Alexandrie I. The Translation Principles”, 196; G.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68.

29) G.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70.

30) *La Bible d'Alexandrie* 시리즈에서 출판된 각 책들은 칠십인역의 번역뿐만 아니라 내용이 풍부한 각주를 포함하고 있다. 각주는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성경의 차이와 본문 문맥에 대한 배경 설명, 신약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와 교부들에 의한 칠십인역의 수용 과정과 그 해석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다. M. Harl, “La Bible d’Alexandrie I. The Translation Principles”, 183-196; G.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70. 본문에 대한 주석 수준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각주는 히브리어 성경과 칠십인역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상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La Bible d'Alexandrie*은 하류 관점에 따른 번역이 가져올 수 있는 취약점을 극복한다고 할 수 있다. 칠십인역의 우리말 번역 시안을 제안한 아래 논문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주를 제시한다.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이상혁(가나다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2 -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94-121.

### 3.1. 히브리어 의미 벗어나기

아들은 칠십인역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려는 것이나 번역자가 말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번역된 칠십인역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칠십인역이 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1)</sup> 히브리어 원문의 동일한 표현이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다른 헬라어로 옮겨졌을 경우에, 히브리어 원문에 의존하면 그 두 헬라어 단어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칠십인역을 성경으로 읽었던 독자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거나 히브리어 성경과 대조하며 칠십인역을 읽지 않았다.<sup>32)</sup> 따라서 아들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존하지 않고 헬라어 본래의 의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독자가 이해하였을 헬라어의 의미를 불어로 번역한다.

#### 3.1.1. 영원히(עַדְעַד)

히브리어 עַדְעַד는 칠십인역에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εἰς τὸν αἰῶνα(사 13:20; 28:28; 33:20; 렘 27[50]:39)로 번역되기도 하였지만, 히브리어 원문과 다르게 εἰς νῆκος(삼상 2:26; 욥 36:7; 렘 3:5; 애 5:20; 암 1:11; 8:7)로 혹은 εἰς τέλος(욥 14:20; 20:7; 23:7; 시9:7, 19, 32[10:11]; 48[49]:10; 73[74]:1, 10, 19; 76[77]:9; 88[89]:47; 합 1:4)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히브리어 원문 עַדְעַד에 영향을 받아서 ‘영원히’로 번역하면 안 되고 εἰς νῆκος는 ‘승리할 때까지’로 εἰς τέλος는 ‘끝까지’로 번역해야 한다고 아들은 생각한다.<sup>33)</sup> NETS에서는 εἰς τὸν αἰῶνα는 주로 직역하여 forever(사 13:20; 28:28; 33:20 등), εἰς νῆκος는 unto victory(삼상 2:26), in victory(욥 36:7), to victory(렘 3:5; 애 5:20), unto victory(암 1:11), successfully(암 8:7), εἰς τέλος는 completely(욥 14:20; 시 9:7, 19; 48[49]:10; 76[77]:9; 88[89]:47), utterly(욥 20:7; 시 73[74]:10), to an end(욥 23:7), (not)…at all(시 9:32[10:11]; 합 1:4), totally(시 73[74]:1, 19), regarding completion(시 138[139]:1; 139[140]:1)으로

31)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6.

32)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의 대조 성경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다음 글을 참조하라. A. Pietersma,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219-220; Albert Pietersma and Benjamin G. Wright III,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xv; A. Pietersma, “Beyond Literalism: Interlinearity Revisited”, Robert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11-16.

33)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7. 아들은 이외에 ‘σωτήριον’와 ‘εἰρήμη’의 예도 제시한다.

번역되었다.<sup>34)</sup> 하지만 브렌톤(Brenton)<sup>35)</sup>은 사무엘상 2:26의 εἰς νῆκος를 perpetually로 번역하였으며, εἰς τέλος를 utterly(시 9:7[8]) 혹은 never(시 9:32[10:11]), to the (an) end (시 48[49]:10; 욥 14:20), for ever(시 74[73]:1, 10, 19; 77:8[76:9]) 등으로 번역하여,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어 원문의 영향이 있는 번역이 있다.<sup>36)</sup> 칠십인역 독자는 히브리어 원문에 의존하거나 이와 비교하며 칠십인역을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의 일반적 의미와 표현 방식에 충실한 번역을 하려는 것이 *La Bible d'Alexandrie*의 번역 정책이다. 혹자는 “영원히”와 “끝까지”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문맥에 따라 이 둘은 호환적이며, 공통 의미가 있다. 아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본문 전체 의미가 아니라, 칠십인역의 표현 방식과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여 칠십인역 고대 독자들의 이해와 느낌을 현대어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 3.1.2. 방주(תִּבְרַת)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תִּבְרַת<sup>37)</sup>는 칠십인역에서 κιβωτός(상자)로 번역되었다(창 6:14, 15, 16, 18, 19 등).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תִּבְרַת는 노아의 방주와 강에서 모세를 태운 상자모만 사용되었다.<sup>38)</sup> 이 단어는 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에 떠다닐 수 있는 나무로 된 물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헬라어 κιβωτός는 ‘상자, 궤, 통, 궤’ 등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원래의 의미에 의하면 사람을 태우고 물에 떠다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히브리어 תִּבְרַת는 불가타에서 arca로 번역되었고 영어와

34) NETS가 상류를 지향하지만 기본적으로 헬라어 의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브렌톤의 영어 번역에 대해서는 각주 2번을 참조하라.

36) 브렌톤이 이렇게 여러 번역을 선택한 이유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략 세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둘째는 문맥을 고려하여, 셋째는 번역 정책의 부재이다.

37) תִּבְרַת의 어원은 ‘상자’ 혹은 ‘배’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치 않고 논란이 있다. ‘상자’를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가 칠십인역과 불가타에서 상자로 번역된 예이다.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Brill, 1999). 아들은 칠십인역이 κιβωτός를 선택한 것은 신학적 이유이며, 불가타는 칠십인역을 따라 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M. Harl, “Le nom de l'Arche de Noé dans la Septante”, M. Harl, éd., *La langue de Japhet: quinze études sur la Septante et le grec des chrétiens* (Paris: Cerf, 1992), 97-125. 이로 미루어 적어도 칠십인역과 불가타가 תִּבְרַת의 ‘상자’ 의미를 지지하는 근거로는 미약하다.

38) 히브리어 תִּבְרַת가 모세를 태워서 강에 띄운 상자로 사용될 때(출 2:3, 5), 칠십인역은 히브리어를 음역하여 θίβις로 번역하였고 *La Bible d'Alexandrie*는 이를 ‘바구니(corbeille)’로 옮겼다.

불어, 독일어에서는 각각 ark, arche, Arche로 번역된다. *La Bible d'Alexandrie*는 불어에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 arche가 있음에도 헬라이어 κιβωτός 본래의 의미대로 “coffre 상자, 궤, 통”으로 번역하였다.<sup>39)</sup> 라틴어 arca가 ‘상자, 궤’를 가리키기에, κιβωτός를 arca에서 발전된 불어 arche로 번역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어에서 형태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arche 아치”와 혼동될 수 있고 노아의 “arche”라고 하면 불어에서 노아의 배를 연상하기에, *La Bible d'Alexandrie*는 κιβωτός를 그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여 “coffre”로 번역한다.

마소라	불가타/칠십인역	불어
תֵּבָה 노아와 모세를 태우는 데 사용	arca 상자, 궤	arche(노아의) 방주
	κιβωτός 상자, 궤	coffre 상자, 궤

현대 불어에서 arche는 라틴어 어원이 비록 상자나 궤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정착하였다.<sup>40)</sup> 따라서 상자나 궤를 의미하는 헬라이어 κιβωτός를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arche로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영향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를은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תֵּבָה도 칠십인역에서 κιβωτός로 번역되었다는 점에<sup>41)</sup> 주목하면서 홍수 사건의 תֵּבָה를 κιβωτός로 번역한 것은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sup>42)</sup> 따라서 아를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선택된 κιβωτός를 그 의미대로 coffre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 NETS는 ark로 번역하였지만 LXX.D는 “Arche(방주)”로 하지 않고 “Kasten(상자)”로 번역하였다. LXX.D 역시 *La Bible d'Alexandrie*와 동일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역 창세기<sup>43)</sup>(창 6:14 **그러니 너는 네모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는 κιβωτός를 기존 한글 성경에서 사용되며 사전적 의미로 “네모난 배”를 가리키는 방주(方舟)로 번역하였고 거기에는 원문에 없는 “한 척”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배의 의미를

39)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68.

40) 대중적인 불어 사전(LE ROBERT)은 arche를 노아의 ‘배(navire)’라고 설명한다.

41) 칠십인역에서 헬라이어 κιβωτός가 율법 돌판을 담은 궤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때(출 25:10; 35:12; 레 16:2; 민 3:31; 신 10:1; 수 3:3), *La Bible d'Alexandrie*는 κιβωτός를 ‘상자(coffre)’로 번역한다.

42) M. Harl, “Le nom de l'Arche de Noé dans la Septante”, M. Harl, éd., *La langue de Japhet: quinze études sur la Septante et le grec des chrétiens* (Paris: Cerf, 1992), 106-117.

43) 정태현,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왜관: 분도출판사, 2006).

명확히 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κιβωτός*는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칠십인역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배의 의미가 들어가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 3.1.3. 가족, 부족 (ἡγεμονία)

히브리어 *ἡγεμονία*는 칠십인역 창세기 10:5, 18, 20, 31, 32; 12:3; 24:38, 40, 41; 28:14; 36:40; 레위기 25:49에서 *φυλή*(가족, 씨족), 출애굽기 6:14, 19; 12:21; 레위기 20:5; 민수기 1:2에서 *συγγένεια*(친척), 출애굽기 6:15, 17 *πατριά*(가족, 부족), 출애굽기 6:24, 25; 민수기 1:18에서 *γένεσις*(기원, 후손, 세대, 가족), 그리고 레위기 25:10에서는 공간 개념인 *πατρίς*(조국, 고향)로 번역되었다. 이 헬라어 단어들은 모두 혈연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개념이다. 대체로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ἡγεμονία*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수기(1:20, 22, 24, 26, 28, 30, 32, 34, 38, 40, 42; 2:34; 3:15, 18, 19, 20, 21, 27, 29, 30, 33, 35, 39; 4:2, 18, 22, 24; 4:33, 34; 11:10; 26:5, 6; 36:12)에서는 *ἡγεμονία*가 혈연관계를 가리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δῆμος*로 번역되었다.<sup>44)</sup> 일반적으로 *ἡγεμονία*가 가족이나 부족을 가리키기에, 이 단어의 대응어 *δῆμος*도 그와 같이 번역하도록 유혹 받을 수 있다고 도리발(G. Dorival)은 지적한다.<sup>45)</sup> 민수기 번역자는 *φυλή*와 *δῆμος*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헬라어에서 *δῆμος*는 도시 국가라는 사회적 환경에 걸맞은 정치적 실체로서의 ‘백성’ 혹은 이러한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나 지역’을 가리킨다. 도리발은 칠십인역 민수기 번역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그리스 도시’ 개념으로 번역하였다고 생각한다.<sup>46)</sup> 그리하여 *La Bible d’Alexandrie*는 *δῆμος*를 그리스 행정 구역 단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 ‘*dème*’으로 번역한다. LXX.D와 NETS는 각각 ‘*Volksgruppe*’와 ‘*division*’으로 번역하여, *La Bible d’Alexandrie*와 차이를 보인다.

## 3.2. 히브리어 본문 벗어나기

칠십인역 사본의 전송 과정은 복잡하며 칠십인역의 본문비평 작업 역시 쉬운 일은 아니기에, 칠십인역의 현대 비평본에는 히브리어 본문이 반영될 수

44) 칠십인역에서 *δῆμος*의 히브리어 대응어는 거의 모두 *ἡγεμονία*이며 절대 다수가 오경에서는 유일하게 민수기에 나타나며, 그 외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종종 등장한다.

45) G. Dorival,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69.

46) Ibid.

도 있다. 하류 관점에서는 본문 선택에 있어서도 칠십인역 중심이다. *La Bible d'Alexandrie*의 오경은 랄프스 비평본을 사용하였지만<sup>47)</sup> 랄프스가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본문의 단어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랄프스 비평본을 따르지 않았다. 아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수정된 본문의 번역을 거부한다.<sup>48)</sup>

### 3.2.1. 파문다(θάπτω)

창세기 15:15에서 오리겐의 헉사플과 칠십인역 대문자 사본은 *τραφείς* (너는 잘 먹다)를 증거한다.<sup>49)</sup> 하지만 괴팅겐 대비평본과 랄프스(*σὺ δὲ ἀπελεύσῃ πρὸς τοὺς πατέρας σου μετ' εἰρήνης τραπεῖς ἐν γήρει καλῶ* 너는 좋은 노년에 장사되어서 평화롭게 너의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는 *ταφείς*(너는 묻히다)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것은 15세기 스페인에서 제작된 대조성경(Polyglotte Complutensis)뿐이다.<sup>50)</sup> 마소라 본문(*בְּשִׁיבָה טוֹבָה תִּקְבֹּר וְנָשָׂא לְאִמְבִּתְךָ וְנָשָׂא לְאִמְבִּתְךָ וְנָשָׂא לְאִמְבִּתְךָ* 너는 너의 조상들에게 평화롭게 갈 것이다. 너는 좋은 노년에 장사될 것이다)은 *קָבַר*(파문다)를 증거한다.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이어 성경 등 여러 언어를 비교하는 대조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칠십인역을 조정하고 랄프스는 대조성경을 참고삼아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θάπτω*를

47) *La Bible d'Alexandrie*의 오경은 민수기를 제외하고는 번역 본문으로 괴팅겐 비평본이 아니라 랄프스 비평본을 사용하였다. *La Bible d'Alexandrie*의 모든 책은 날권으로 출판되었지만, 오경 번역이 개별적으로 완성된 후에 오경만 한 권으로 묶어서 다시 출판이 되었다. 묶음 오경 책에서는 이 단권의 통일성을 위해서 민수기 역시 랄프스 비평본에 따른 번역을 실었다. *La Bible d'Alexandrie* 시리즈의 오경 책임 편집자 중 한 사람인 도니에(C. Dogniez)는 괴팅겐이 랄프스보다 선호할 만하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에 괴팅겐 비평본 전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La Bible d'Alexandrie* 작업 초기에 랄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C. Dogniez, “La présente édition du Pentateuque d'Alexandrie”, C. Dogniez et M. Harl, eds., *Le Pentateuque: La Bible d'Alexandrie* (Paris: Gallimard, 2003), 544-545. 뫼니취(O. Munnich) 역시 괴팅겐이 랄프스보다 낫지만, 이 두 비평본이 유사하며 랄프스가 괴팅겐보다 많이 보급되었기에 랄프스를 사용한다고 밝힌다. O. Munnich, “Le texte du Pentateuque et son histoire”, *Le Pentateuque: La Bible d'Alexandrie*, C. Dogniez et M. Harl, eds., *Le Pentateuque: La Bible d'Alexandrie* (Paris: Gallimard, 2003), 608. 칠십인역의 적절한 우리말 번역 대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김근주, 김선중, 김정훈, 이상혁(가나다 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1:1-2:3의 예로”, 56-58.

48) M. Harl, “La Bible d'Alexandrie I. The Translation Principles”, 193.

49) F. Fiel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Hildesheim: G. Olms, 1964); H. B. Swete,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Vol. I Genesis-IV King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01; org. ed. 1887).

50) 참조, F. Fiel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선택한 것으로 아를은 판단한다.<sup>51)</sup> *La Bible d'Alexandrie*은 θάπτω가 히브리어 원문에 따른 수정이라 판단하여 랄프스를 따르지 않고 τρέφω를 선택하여 “Toi, tu partiras vers tes pères, en paix, **ayant vécu** une belle vieillesse 너는 좋은 노년을 살고 나서 후에 평화롭게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다”로 번역한다. NETS “Now as for yourself, you shall depart to your fathers in peace, buried in a good old age”와 LXX.D “Du aber wirst in Frieden zu deinen Vatern gehen, begraben in schonem Greisenalter” 역시 괴팅겐 비평본에 따라 번역을 하여 히브리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본문을 따른다. 칠십인역 창세기 역시 “너는 평화로이 네 조상들에게 가리라. 너는 아주 늙어 무덤에 묻히리라”로 번역한다. 칠십인역 창세기는 15:15의 각주(26)에서 “많은 LXX 필사본들에 동사 ‘먹이다/양육하다 τρέφω’에서 파생된 τραπείς가 나온다. 우리말 번역 대본이 된 LXX(랄프스판)이 이 단어를 “ταφείς(너는 묻히리라)”로 고쳐 MT와의 일치를 꾀하였다.”<sup>52)</sup>고 하며 랄프스 비평본이 히브리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수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랄프스를 따른 것으로 미루어 칠십인역 창세기는 상류와 하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결여 혹은 상류 관점에 따른 번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 Bible d'Alexandrie*는 하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칠십인역 비평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비평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주목 받을 필요가 있다.

### 3.2.2. 접속사(ὅτι)

랄프스(시 21:32 καὶ ἀναγγελοῦσιν τὴν δικαιοσύνην αὐτοῦ λαῶ τῷ τεχθησομένῳ **ὅτι** ἐποίησεν ὁ κύριος 그들은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그의 의를 선포할 것이다.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에 의하면 시편 21:32에는 ὅτι가 이끄는 절이 있다. 아를이 확인한 바와 칠십인역 모든 대문자 사본<sup>53)</sup>(... λαῶ τῷ τεχθησομένῳ **ὄν** ἐποίησεν ὁ κύριος 주님이 만들어서 태어나게 될 백성에게 ...)은 ὅτι가 아니라 ὄν을 지지한다. 현대 비평본이 ὅτι를 선택한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시 22:32 עָשָׂה לָנוּ נִלְוָה לְעַם נִלְוָה וְיִגְדְּלוּ צְדָקָתוֹ לְעַם נִלְוָה 그들이 와서 그의 의를 태어날 그 백성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가 만들었기 때문이다)의 וְ와 의미가 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a Bible d'Alexandrie*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맞추어 수정된 ὅτι를 거부하고 칠십인역의 주요 사본이 증거하

51)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7.

52) 정태현,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 106(각주 26).

53) H. B. Swete,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Septuagint Vol. II I Chronicles-Tobit*.

는 ὅν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차이는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에서도 나타난다. 브렌톤은 ὅν에 따른 “o the people that shall be born, whom the Lord has made”로 한 반면, NETS “... to a people to be born, because the Lord acted”와 LXX.D는 “... dem Volk, das geboren wird, denn der Herr hat (es) gemacht”로 하여서 ὅν을 따랐다. 랄프스의 비평본이 나오기 전에 번역된 브렌톤과 이후에 번역된 NETS와 LXX.D의 차이를 통해서 시편 21:32의 ὅν이 랄프스에 의해서 칠십인역 본문으로 간주되어 칠십인역 비평본에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류 관점을 견지하는 NETS가 ὅν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LXX.D는 시편 21:32의 후반부에 각주를 달아서 “denn der Herr hat (es) gemacht”는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는 것이며, 칠십인역 사본에는 “das der Herr gemacht hat”라고 하여서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차이를 제시한다. 시편 21:32의 각주는 LXX.D가 이 절에서 상류에 손을 들어 주었지만 상류와 하류 사이에서 고민하였음을 보여준다.

### 3.3. 칠십인역의 표현 형식과 의미 존중

*La Bible d'Alexandrie*는 하류 관점에 따라서 칠십인역의 의미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도 존중한다.<sup>54)</sup> 이를 위해서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헬라어에 충실한 문자적 번역 곧, 헬라어의 문법 형태를 존중하는 번역을 시도한다. 이런 번역은 현대어 독자들에게 칠십인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며, 칠십인역의 언어적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 구체적 예들을 보자.

#### 3.3.1. 면전에서(ἀπὸ προσώπου)

칠십인역에는 히브리어의 관용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러한 히브리어 관용구 중에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된 표현이 많다. 창세기 4:16(הוֹרֵהוּ מִלְּפָנַי מִן הַצֵּדָה [가인이 여호와로부터 떠나다])에서 히브리어 מִלְּפָנַי는 전치사(מִן)와 명사(פָּנַי [얼굴])가 결합된 표현이지만 얼굴이라는 의미는 없고 ‘...로부터 혹은 ...앞’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칠십인역 번역자(ἐξῆλθεν δὲ Καὶν ἀπὸ προσώπου τοῦ θεοῦ. [가인이 하나님 면전에서 나왔다])도 히브리어 형식을 살려서 전치사(ἀπὸ [로부터])와 명사(πρόσωπον [얼굴])가 결합한 형태인 ἀπὸ προσώπου로 번

54) 정태현은 “우리말 번역은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였다”고 한다. 정태현,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 13.

역한다. 히브리어에서처럼 헬라어에서도 얼굴이라는 의미는 없고, 그냥 “...로부터 혹은 ...앞”을 의미할 뿐이다. 그럼에도 아를은 πρόσωπον의 존재감을 불어 번역에서 살리려고 한다. 칠십인역의 ἀπὸ προσώπου는 불어에서 ‘de la présence de’ 혹은 ‘de devant, devant’ 등이 가능하지만, 아를은 헬라어 πρόσωπον의 사전적 대응어 face(얼굴)가 들어 있는 불어의 관용적 표현 ‘de la face de(면전에서, 바로 앞에서)’를 선택하여 “Caïn sortit loin de la face de Dieu”로 옮긴다.<sup>55)</sup> NETS “Kain went away from the presence of God”와 LXX.D “Kain aber ging vom Angesicht Gottes weg”를 비교하면, NETS에 비해서 LXX.D가 하류 관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πρόσωπον을 고려하여 “가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멀리 갔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칠십인역 창세기』는 “카인은 하느님 얼굴에서 물러나와 ...”로 번역하였다. 칠십인역의 표현 형태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세기 4:16의 הָיָה לְקַיִן מִלְּפָנֶיךָ에서 מִלְּפָנֶיךָ는 ‘...앞에, 혹은 ...로부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이다. 따라서 칠십인역 번역자는 그 의미만 살려서 창세기 24:51처럼 ἐνώπιόν 혹은 창세기 6:11처럼 ἐναντίον같이 간단히 전치사 한 단어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칠십인역 번역자가 창세기 4:16(창 11:9)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이 구절의 헬라어 표현을 최대한 살려서 전달하려는 것이 하류 관점에 근거한 아를의 생각이다.<sup>56)</sup>

### 3.3.2. 입술(χείλος)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1장에서는 פִּתּוֹ(입술)가 언어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창세기 11:1(καὶ ἦν πᾶσα ἡ γῆ χεῖλος ἓν καὶ φωνὴ μία πᾶσιν), 6, 9에서 칠십인역 번역자는 히브리어 פִּתּוֹ의 사전적 대응어인 χεῖλος, 창세기 11:7에서는 פִּתּוֹ의 문맥적 의미를 좇아 γλῶσσα(혀, 언어)로 번역하였다. 칠십인역 독자는 문맥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χεῖλος가 언어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sup>57)</sup> *La Bible d’Alexandrie*는 칠십인역 독자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χεῖλος의 문맥적 의미인 언어가 아니라 케이로스의 사전적 의미인 입술(lèvre)

55) 이 문제는 비단 칠십인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 4:16의 히브리어를 [LSG] Puis, Caïn s’éloigna de la face de l’Éternel, [TOB]는 “Caïn s’éloigna de la présence du SEIGNEUR”로 번역하였다. [TOB]에 비해서 [LSG]가 가능한 히브리어 원문의 형태를 존중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56)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8.

57) 헬라어에서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는 γλῶσσα이며, 창11:7에서는 히브리어 פִּתּוֹ를 γλῶσσα로 번역하였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פִּתּוֹ(혀, 언어)이 언어를 가리키며 대개 γλῶσσα로 번역되었다(창 10:5, 20, 31; 출 4:10; 수 10:21; 삼하 23:2; 사 3:8; 28:11; 렘 5:15; 겔 3:5).

로 번역하였다(*La Bible d'Alexandrie* 창 11:1 Et toute la terre était une seule lèvre et c'était une seule voix pour tous. 6 ... une seule espèce et une seule lèvre pour tous. 9 ... le Seigneur confondit là les lèvres de toute la terre).<sup>58)</sup> 창세기 11장의 문맥적 정황에서 입술이 언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지만, 불어에서 일반적 의미로 입술이 언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sup>59)</sup> 그럼에도 *La Bible d'Alexandrie*가 입술을 선택한 이유는 가능한 헬라어의 일상적 의미를 불어로 옮기려는 *La Bible d'Alexandrie*의 번역 정책 때문이다. 창세기 11장에서 분명히 ‘한 언어’가 ‘한 입술’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도 분명하다. 하지만, 칠십인역의 표현을 존중하고 칠십인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하류 관점에서는 ‘입술’이 타당하다. 칠십인역 창세기 “온 땅이 한 입술이었고 모든 이에게 한 목소리가 있었다”와 NETS “And the whole earth was one **lip**, and there was one speech for all”,<sup>60)</sup> LXX.D “Und die ganze Erde war eine einzige **Lippe** und eine einzige Stimme war allen gemeinsam” 역시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 3.3.3. 보여지다(ὤφθη)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하여 동사 **הִרְאָה**가 사용될 때, 히브리어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니팔형이 주로 사용된다.<sup>61)</sup> 이런 경우 칠십인역에서 니팔은 대개 수동형으로 번역된다(창 12:7 καὶ ὤφθη κύριος τῷ Ἀβραμ [그리고 주님이 아브람에게 보였다]; 17:1; 18:1; 출 3:2; 16:10; 레 9:23; 민 14:10; 사 6:12; 왕상 3:5외 다수).<sup>62)</sup> 이런 경우에 *La Bible d'Alexandrie*는 칠십인역의 수동태 문장을 불어 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접하는 문법 형태로 번역한다(창 12:7 Et le Seigneur se fit voir à Abram [그리고 주님이 아브람에게 보였다]). 칠십인역 창세기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NETS는 “And the Lord **appeared** to Abram ...”, LXX.D는 “Und der Herr **zeigte sich** Abram ...”로 번역하였다. 칠십인역 창세기와 NETS는 칠십인역의 헬라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반면, LXX.D는 독일어 문법이 허용하

58) M. Harl,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39.

59) 불어에서 lèvre는 언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독자가 문맥을 고려하면 lèvre를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60) 이 경우에 NETS가 입술로 번역하였지만 하류 지향적 번역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

61) 창 1:9(הִרְאָה הַיְהוָה וַיִּרְאֵהוּ)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다)처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도 니팔이 사용되며 칠십인역에서 수동태(ὤφθη)로 번역되었다.

62) 칠십인역 중에서 원래 헬라어로 쓰인 책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은 수동태로 나타난다(지혜 2:12: 토비 12:22).

는 범위 내에서 헬라어 문법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차이를 통해서 하류 관점에 따른 번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3.4. 교부 해석 활용

칠십인역 번역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초대 교부들은 도움을 준다. 특히 교부들의 해석은 상류 관점을 구현하는 데 유익하다. 헬라 교부 오리겐으로 박사 논문을 쓴 아를은 초대 교회사 교수였으며, 교부를 연구하다가 헬라 교부들이 그들의 책에 인용하고 주석한 성경 곧, 칠십인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sup>63)</sup> 이런 배경에서 아를과 *La Bible d'Alexandrie*는 칠십인역 번역과 각주에 교부들을 적극 활용한다. *La Bible d'Alexandrie*의 호세아서 책임 번역자였던 요스텐(J. Joosten)은 칠십인역 초기 독자들의 해석은 칠십인역의 난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초기 독자들 중에는 헬라어가 모국어인 경우가 많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칠십인역이 만들어진 문화적 배경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칠십인역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부 초기 해석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sup>64)</sup> 호세아 12:12의 예를 통해서 *La Bible d'Alexandrie*가 어떻게 교부들의 해석을 활용하는지 보겠다.

호세아 12:12(καὶ τὰ θυσιαστήρια αὐτῶν ὡς χελῶναι ἐπὶ χέρσον ἀγροῦ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은 마른 들판의 케로나이처럼 된다)에서 χελῶναι는 히브리어 מַבְרָא(돌무더기)의 번역이다. 리델-스코트-존은 χελῶναι를 ‘1. 거북이, 2. 발의자, 3. 아치지붕으로 된 무덤, 4. 작은 언덕’으로 설명한다. ‘작은 언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호세아 12:12 단 하나이다.<sup>65)</sup> 브렌튼과 NETS는 히브리어의 의미대로 각각 heaps와 stone heaps로 번역한다. 요스텐은 후기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מַבְרָא가 거북이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sup>66)</sup>, 번역자는 호세아서가 쓰인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번역자가 살던 시대에 통용되는 מַבְרָא의 의미에 따라서 번역하였다고 본 요스텐은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성서 히브

63) M. Harl, *La Bible en Sorbonne ou la Revanche d'Erasmus* (Paris: Cerf, 2004), 91-184.

64) J. Joosten, “La Bible d'Alexandrie and How to Translate the Septuagint”, Robert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39-242.

65) H. G. Liddell, R. Scott and H. 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New York: Clarend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이로 미루어 리델-스코트-존의 ‘작은 언덕’은 호 12:12의 히브리어 의미에 따른 것이다.

66) M.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London: G. P. Putnam's Sons, 1903).

리어의 의미를 후기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이해하는 실수가 가끔 있다고 지적한다.<sup>67)</sup> 요스텐은 칠십인역 호세아서를 주석한 교부들이  $\chi\epsilon\lambda\acute{\omega}\nu\alpha\iota$ 를 거북이의 의미로 이해하였음을 잘 설명한다. 물은 거북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물이 없는 땅에서 거북이는 살기 힘들다. 교부(테오도르[Theodore of Mopsuestia], 테오도르[Theodore of Cyr], 시릴[Cyril of Alexandria])들은 호세아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제단은 마른 땅의 거북이 같은 것이라 주석한다고 요스텐은 설명한다.<sup>68)</sup> LXX.D는 *La Bible d'Alexandrie*의 호세아서 번역처럼 ‘거북이(Schildkröte)’로 옮겼다. *La Bible d'Alexandrie*가 교부들의 해석을 적극 활용한 탓에 우쯔쉬나이드(H. Utschneider)는 *La Bible d'Alexandrie*가 후기 독자들의 관점에서 칠십인역을 접근했다고 지적한다.<sup>69)</sup> 이에 대해 요스텐은 *La Bible d'Alexandrie*가 칠십인역의 초기 독자들의 해석을 활용하는 것은 칠십인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우쯔쉬나이드의 지적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한다.<sup>70)</sup> 비록 칠십인역 번역자가 오해하였다고 할지라도 칠십인역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 하류 관점에 근거한 *La Bible d'Alexandrie*의 입장이다. 그리고 *La Bible d'Alexandrie*는 교부들의 해석이 하류 관점을 유지하는 데 유익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부들의 해석이 칠십인역 번역에 도움을 주지만, 마르코스의 지적대로 초대 기독교인들과 초대 교부들의 교리화된 해석과 칠십인역 본문 자체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sup>71)</sup>

#### 4. 나오는 말

칠십인역은 역본이지만 초대 기독교 내에서는 실제 경전의 역할을 하였으

67) J. Joosten, “La Bible d'Alexandrie and How to Translate the Septuagint”, 241.

68) Ibid.

69) H. Utschneider, “Auf Augenhöhe Mit Dem Text: Überlegungen Zum Wissenschaftlichen Standort einer Übersetzung der Septuaginta ins Deutsche”, 11-50.

70) J. Joosten, “La Bible d'Alexandrie and How to Translate the Septuagint”, 240.

71) N. F. Marcos, “Reactions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238-239. 만약 칠십인역의 우리말 번역을 진행한다면 교부들의 해석을 참조하는 것이 좋지만 적극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a Bible d'Alexandrie*가 교부를 잘 활용하였는데, 이는 *La Bible d'Alexandrie*의 책임자와 초기 참여자들이 교부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 점은 NETS와 LXX.D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칠십인역 스페인어 번역을 맡고 있는 마르코스는 교부들의 해석은 이미 잘 반영된 *La Bible d'Alexandrie*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며 그 자체가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었기에 히브리어 원본에 의존하지 않고 칠십인역이 당대 독자들에게 이해되었던 방식대로 번역돼야 한다는 게 하류 관점이다. *La Bible d'Alexandrie* 시리즈에서 출간된 모든 책을 검토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하류 관점에 따른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었다.<sup>72)</sup> 상류와 하류 같은 번역 정책에 대한 고민은 칠십인역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 무엇보다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번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게다가 상류와 하류 관점은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뿐만 아니라 칠십인역 사전 편찬, 칠십인역 본문 주석, 신약의 구약 인용 해석과 관련해서도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가치가 있다. 이미 출판된 칠십인역 창세기와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시안에서 칠십인역 헬라어에 충실한 한글 번역을 시도하고 제안하였지만, 서구에서 있었던 칠십인역 현대어 번역에 대한 기존의 논쟁이나 구체적 번역 방법 및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칠십인역의 현대어 번역 논의를 거쳤고 거의 완성되어 가는 칠십인역의 불어 번역 정책과 그 논의를 살피는 일은 의미가 있다. 끝으로 이 글이 칠십인역의 한글 번역을 위한 번역 정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그 적용을 가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주요어>(Keywords)

칠십인역, 알렉산드리아 성경, 성경 번역, 한글 성경, 헬라어, 번역기법.

Septuagint, Alexandria Bible, Greek, 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technique.

(투고 일자: 2012년 7월 16일, 심사 일자: 2012년 8월 17일, 게재 확정 일자: 2012년 9월 6일)

72) 보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 하류 관점과 ‘번역자의 의도’와의 관계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를은 하류 관점과 번역자의 의도를 구분하지만 상류와의 투쟁에 몰입하여 하류와 번역자의 의도와 차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인상을 준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E. Tov, “Three Dimensions of LXX Words”, *RB* 83 (1976), 529-544; Ph. Lefebvre, “Les mots de la Septante ont-ils trois dimensions?”, G. Dorival et O. Munnich, eds., *Κατὰ τοὺς ο' Selon les Septante: Trente études sur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en hommage à Marguerite Harl* (Paris: Cerf, 1995), 299-320.

<참고문헌>(References)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이상혁(가나다 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1 -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1 (2007), 53-68.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이상혁(가나다 순), “칠십인역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2 - 창세기 1:1-2:3의 예로”, 『성경원문연구』 22 (2008), 94-121.
- 정태현과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Brenton, Lancelot Charles Lee,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Vatican Text,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rincipal Various Readings of the Alexandrine Copy, and A Table of Comparative Chronology*, London: S. Bagster and Sons, 1844.
- Cook, J., “Translating the Septuagint: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9-33.
- Dines, J. M., *The Septuagint*, London: T & T Clark, 2004.
- Dorival, G., “La Bible d’Alexandrie, Which Changes”,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65-78.
- Dogniez, C., “La présente édition du Pentateuque d’Alexandrie”, C. Dogniez et M. Harl, eds., *Le Pentateuque: La Bible d’Alexandrie*, Paris: Cerf, 2001, 544-554.
- Fridericus, F.,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Hildesheim: G. Olms, 1964.
- Harl, M., Dorival, G., et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Paris: Cerf, 1988.
- Harl, M., *La Bible en Sorbonne ou la revanche d’Erasmus*, Paris: Cerf, 2004.
- Harl, M., “La Bible d’Alexandrie I. The Translation Principles”,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181-197.
- Harl, M., “Le nom de l’Arche de Noé dans la Septante”, M. Harl, éd., *La langue de Japhet: quinze études sur la Septante et le grec des chrétiens*, Paris: Cerf, 1992. 97-125.
- Harl, M., *La Genèse*, Paris: Cerf, 1986.
- Harl, M., “Traduire la Septante en français: pourquoi et comment?”, M. Harl, éd., *La*

- langue de Japhet: quinze études sur la Septante et le grec des chrétiens*, Paris: Cerf, 1984, 32-41.
- Jastrow, M.,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London: G. P. Putnam's Sons, 1903.
- Jellicoe, S.,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Joosten, J., "La Bible d'Alexandrie and How to Translate the Septuagint",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39-242.
- Karrer, M., und Kraus, W., *Septuaginta Deutsch*, Stuttgart: Bibelgesellschaft, 2009.
- Kraus, W., "Septuaginta Deutsch (LXX.D): The Value of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43-248.
- Kreuzer, S.,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IOSCS 34 (2001), 40-45; 김정훈 역, "칠십인역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 「성서마당」 59 (2003), 18-22.
- Lefebvre, Ph., "Les mots de la Septante ont-ils trois dimensions?", G. Dorival et O. Munnich, eds., *Κατὰ τοὺς ο' Selon les Septante: Trente études sur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en hommage à Marguerite Harl*, Paris: Cerf, 1995, 299-320.
- Liddell, H. G., Scott, R., and Jones, H. 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s, 1996.
- Lust, J., Eynikel, E., and Hauspie, K.,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3.
- Marcos, N. F., and Busto Saiz, J. R.,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Madrid: CSIC, 1989, 1992, 1996.
- Marcos, N. F., "A New Span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H. Ausloos, J. Cook, F. Garcia Martinez, B. Lemmelijn and M. Vervenne, eds., *Translating a Translation: The LXX and its Modern Translations in the Context of Early Judaism*, Leuven: Peeters, 2008, 283-291.
- Marcos, N. F., "Reactions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233-240.
- Muraoka, 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09.
- Munnich, O., "Le texte du Pentateuque et son histoire", C. Dogniez et M. Harl, eds., *Le*

- Pentateuque: La Bible d'Alexandrie*, Paris: Cerf, 2001, 594-609.
- Pietersma, A., and Wright, B. G.,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Pietersma, A., "Beyond Literalism: Interlinearity Revisited",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3-21.
- Pietersma, A., "NETS and 'Upstream-Downstream' Metaphor", R. J. V. Hiebert, ed., *Translation is Required: The Septuagi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0, 233-234.
- Pietersma, A.,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217-228.
- Rahlfs, A.,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Duo volumina in uno*,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 Thompson, C.,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from the Greek*, Philadelphia: Jane Aitken, 1808.
- Tov, E., "Three Dimensions of LXX Words", *RB* 83 (1976), 529-544.
- Utzschneider, H., "Auf Augenhöhe mit dem Text: Überlegungen zum wissenschaftlichen Standort einer Übersetzung der Septuaginta ins Deutsche", H.-F. Fabry und U. Offerhaus., Hrg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Studien zur Entstehung und Bedeutung der Griechischen Bibel (Band 1)*, Stuttgart: Kolhammer, 2001, 11-50.
- Veltri, G., *Libraries, Translations, and 'Canonic' Tests: The Septuagint, Aquila and Ben Sira in the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s*, Leiden: Brill, 2006.

<Abstract>

**The Septuagint and Its Modern Language Translations:  
La Bible d'Alexandrie**

Dr. Sang-Hyuk Woo  
(Anyang University)

In the 3rd century B.C., the Hebrew Old Testament was translated by seventy two scholars in Alexandria of Egypt which was the center of Hellenism. Later, the Greek Old Testament was also translated into several languages of the Near East where people did not learn Greek. These translations, called daughters of the Septuagint, were used for liturgical and educational purposes of the church. In the mediaeval age, the Septuagint was unnoticed and the reformers also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it. In the late 20<sup>th</sup> century, the Septuagint underwent a revival of translation like that of its former days. There were two approaches to translating the Septuagint into modern languages. One is called the upstream perspective and the other the downstream perspective. The upstream perspective takes notice of the source text in Hebrew, but the downstream perspective focuses the attention of the Septuagint translators. In this article, we finally try to investigate ways to translate the Septuagint into Korean.